

### 권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18>

#### 덕운비구의 가르침

문수보살의 지도에 따라 덕운비구를 찾아간 선재동자는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닦으며 보현행을 빨리 원만케 하는지 가르쳐주시기를 청한다. 이에 덕운비구는 선재동자가 아늑다라삼막삼보리심을 내어서 보살의 행을 묻는 것을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착한 남자여, 나는 자유자재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힘을 얻어서 믿는 눈이 청정하고 지혜 빛이 밝게 비치므로 경계를 두루 관찰하여 모든 장애를 여의었으며, 교묘하게 관찰하여 넓은 눈이 밝아서 청정한 행을 갖추었으며, 사방의 모든 국토에 가서 여러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모든 부처님 여래를 항상 생각하며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모두 지니고 사방의 모든 부처님을 항상 뵈옵느니라. 이른바 동방에서 한 부처님 · 두 부처님 · 열 부처님 내지 불가설 불가설 부처 세계의 티끌수 부처님을 뵈옵느니라. 동방에서와 같이 남방 · 서방 · 북방과 상방 · 하방에서도 역시 그러하며, 날날 방위에 계시는 부처님들의 갖가지 빛깔 · 갖가지 형상 · 갖가지 신통 · 갖가지 지

혜 · 갖가지 모인 대중과 장엄한 도량 · 갖가지 광명이 끝없이 비치는 일 · 갖가지 국토 · 갖가지 수명과 중생들의 갖가지 마음을 따라서 갖가지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어서 대중들 가운데서 사자후 하느니라. 착한 남자여, 나는 이 모든 부처님과 함께

### 지혜의 눈으로 일체제불을 보라

### 억념염불은 보살도 실천의 근본

님의 경계를 생각하여 지혜의 광명으로 두루 보는 법문(懺念一切諸佛境界覺光明普見法門)을 얻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덕운비구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서 모든 것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일체의 경계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사방세계에서 항상 널리 티끌수와 같은 부처님과 그 경계를 자유자재하게 볼 수 있다. 이 법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갖고 청정하게 수행하는 21가지의 염불문(念佛門)을 실천한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처님이 큰 지혜의 빛으로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것을 염한다. ② 부처님이 중생들을 전도된 삶에서 떠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염한다. ③ 부처님은 위대한 열 가지의 힘을 가지고 계심을 염한다. ④ 부처님은 어떠한 법에도 전도됨이 없음을 염한다. ⑤ 부처님이 사방세계에 항상 상주하고 계심을 염한다. ⑥ 부처님이 국토에 따라서 몸을 달리 나타냄을 염한다. ⑦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염한다. ⑧ 부처님이 일체 장소에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고 염한다.

이와 같은 염불문은 부처님의 덕을 염하는 것으로서, 실천적으로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삼매는 정토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을 칭명하는 염불과는 뜻이 다르다. 즉 이 염불은 칭명염불이 아니라 부처님과 그 세계를 일념으로 생각하는 억념염불(憶念念佛)이다.

문수보살의 지도에 따라 찾아가던 최초의 선지식에 의해 염불이 실현되는 것은 염불이 보살도의 실천에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살도는 부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보살도는 부처님을 이상으로 하여 그 덕을 기리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부처님의 덕을 일념으로 생각하는 염불삼매는 모든 보살행에 앞서게 된다. 그리고 항상 염불함으로써 여러 가지 번뇌와 어려움을 소멸시키는 인연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행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살도 염불삼매는 보살도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불삼매는 모든 부처님과 그 경계를 보게 해 주며, 중생들의 원에 응해서 저의 행을 펼치게 하고, 부처님의 큰 힘을 염해서 수습하는 등 여러 가지의 덕이나 자재한 작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러한 염불삼매를 제대로 닦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혜의 눈을 얻어만 모든 부처님들을 볼 수가 있고, 진정한 부처님을 발견해 내는 것이 깨달음의 도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그것을 염하는 것은 염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모든 부처님을 염하는 의미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삼매는 정토교에서 말하는 아미타불을 칭명하는 염불과는 뜻이 다르다. 즉 이 염불은 칭명염불이 아니라 부처님과 그 세계를 일념으로 생각하는 억념염불(憶念念佛)이다.

문수보살의 지도에 따라 찾아가던 최초의 선지식에 의해 염불이 실현되는 것은 염불이 보살도의 실천에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살도는 부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보살도는 부처님을 이상으로 하여 그 덕을 기리면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부처님의 덕을 일념으로 생각하는 염불삼매는 모든 보살행에 앞서게 된다. 그리고 항상 염불함으로써 여러 가지 번뇌와 어려움을 소멸시키는 인연이 되기도 하고, 훌륭한 행을 이루게 하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살도 염불삼매는 보살도의 출발에서부터 모든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염불삼매는 모든 부처님과 그 경계를 보게 해 주며, 중생들의 원에 응해서 저의 행을 펼치게 하고, 부처님의 큰 힘을 염해서 수습하는 등 여러 가지의 덕이나 자재한 작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러한 염불삼매를 제대로 닦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안목을 갖추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혜의 눈을 얻어만 모든 부처님들을 볼 수가 있고, 진정한 부처님을 발견해 내는 것이 깨달음의 도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다.

< 김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중유(中有)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불교의 윤회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과학이 윤회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한 번 살펴보자. 윤회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최면상태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최면과는 관계없이 평상시에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마음이 윤회하는가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전생의 기억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환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사실과 환상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시 말하면 윤회는 사실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으며 또는 사실과 환상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마음의 윤회라는 분야에서는 1977년 신경생리학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에클스 경(Sir John Eccles)이 <뇌의 진화>라는 저서를 통하여 영혼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결코 제거되거나 상실되는 일이 없으며 그것은 태아에 이식됨으로서 영혼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혼은 진화하며 유전된다고 하였다.

영국의 이론물리학자이며 심리학자인 러셀(Peter Russell) 역시 의식은 두

#### 윤회 연구자 “사실 · 환상 섞여 있을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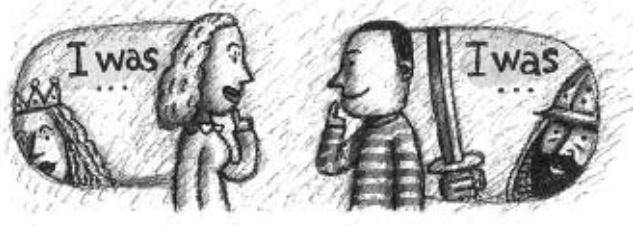
#### 영혼은 태아에 이식됨으로서 진화, 유전

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교수이며 대학 부설 환경연구소장을 역임한 정신과 의사인 아이안 스티븐슨이 가장 유명하다. 스티븐슨은 연구팀과 함께 전세계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연구하였다. 그는 이렇게 수집한 2,000여 건의 사례 중에서 가장 확실한 환생으로 생각되는 20개의 사례를 모아 <환생을 시사하는 20개의 사례>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매우 학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윤회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면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1988년 미국 임상최면학회가 공인한 <최면과 기억>이라는 책에 의하면 “최면에서 회상된 기억은 사실일 수도 있고

뇌와는 별개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기에 마음은 진화의 요체라고 하였다. 특히 생물학자이며 유토피카인 영국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저술에서 유전자는 그에 대응하는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하여 문화가 유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도킨스의 믿이라는 구조는 유전자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가 말하는 믿음은 누가 보아도 ‘마음’과 동일한 말이다. 결국 유토피카인 도킨스도 스스로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유전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13

#### 돈교에 대한 징관의 입장(2)

부처님 설법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별은 현대종에서 강조한 것이다. 설법의 내용은 바로 부처님이 경험한 법에 대한 분류이다. 반면에 설법의 방법은 체험 내용을 대중을 위해서 세우는 방편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교는 설법의 내용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방법에 대한 규정인가? 해원은 돈교란 교설의 내용이 아니라 교설의 방법이라는 관점을 갖는다. 그러나 징관은 해원의 돈교에 대한 이해는 현대종의 견해에 일치된 것으로 화엄종 법장의 이해는 아니라고 비판한다. 법장은 ‘말없는 말로서’ 단박에 이치를 드러내 ‘한 부류의 기쁨을 위해서’ 돈교를 세웠다고 징관은 말한다.

현대종에서는 돈교가 설법의 내용이 아니라 설법의 양식이기 때문에 따로 돈교를 세우지 않았지만, 화엄종에서는 설법의 양식과 더불어서 설법의 내용으로서도 돈교를 세운다는 것이다. 그래서 징관은 해원

이 자신의 스승인 법장의 견해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몸만 화엄종이지 정신은 현대종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돈교를 ‘말 떠남’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정의한다면 경험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교설로

### 돈교의 근거 불교계 현실서 찾아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모든 부처의 교설은 말 떠남의 가르침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기에 별도의 경계선을 그을 처지는 아니라고 본다.

만약 화엄종의 주장처럼, 화엄의 돈교가 실제로 교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 방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설의 대상으로서 이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현실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

다. 현실적으로 돈교에 해당하는 부류(假類)는 누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징관은 당시에 새롭게 일어난 선종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돈교) 곧 선종에 순응하는 사람이다. 달마는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돈교이다. 하나의 말을 가르쳐서 곧장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即心是佛)’라고 설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하리오. 그런 까닭에 말없는 말에 의지하여 곧장 말 끊어짐의 이치를 드러내니 이 역시 교입이 명백하다. 그

러므로 남 · 북종의 선이 돈교 아닌 바가 없다.

화엄에서 보면 선은 바로 돈교이다. 화엄종에서 돈교를 시찰할 때는 결코 선종을 염두에 두고 세운 것은 아니지만, 징관은 해원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분명하게 선종을 돈교에 배속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시키고 있다. 먼저 돈교를 교설로 분류하면서도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징관은 ‘마음이 곧 그대로 부처(即心是佛)’라는 교설이 바로 직접적인 가르침(能詮)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으며, 교설을 설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말없는 말(無言之言)’로서 이치를 단박에 드러내 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한다. 그리하여 징관은 결과적으로 새로 발생되고 있는 선종을 화엄의 오교관 가운데 하나의 교설이란 관점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법장이 돈교의 근거를 경전에서 찾았지만, 해원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징관은 현실적인 화엄의 오교관으로서 그 해답을 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선종의 변화된 위상과도 관계된 시대적인 차이점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화엄과 선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화엄의 오교관은 결국은 화엄종의 우위라는 종파적인 관점을 배제할 수 없고, 이점을 선종에서는 결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고려 보조지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인경(禪宗담원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미얀마 남방 수련법회 및 남방 수계, 보살계**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와 성지순례 -

※ 황금 불탑의 성지 미얀마로 신심깊은 불자님을 모십니다

**행사내용**

- ▶ 남방 전통 합동 천도재(참여불자님 모두)
- ▶ 남방수계, 보살계(수계중서 및 수료중)
- ▶ 위빠사나 수행 체험 및 강좌
- ▶ 탁발체험 및 1일 1종식 체험
- ▶ 미얀마 성지순례(양곤, 파간, 만달레이, 뻘피아 등)

**행사기간** 2003.6.6 - 6.16(10박 11일)

**참여준비물** 사진(반명함) 6매, 여권

**참여인원** 선착순 36명

주 관 AUNG MYAY THAR SI Temple, MYANMAR PIDAYA Temple, MYANMAR  
주 최 양곤 AUNG MYAY THAR SI Temple, 만달레이 PINDAYA Temple

**한국총관 사 자 암**

문의 및 상담안내 033)647-3412, 011-9795-3411 / FAX 033)647-3412

**성지순례지**

양곤 (쉐다곤파고다, 마하위지하파고다, 차욱타지파고다, 보타다응파고다, 아우미따지사원, 까바에파고다)  
파간 (쉐다곤파고다, 아난다파고다, 텃버인뉴파고다, 따미양지파고다)  
만달레이 (짜욱토지파고다, 구도도파고다, 쉐난도파고다, 만달레이언덕)  
뻘피아 (신고운 따운 사원, 뻘피아 동굴)  
만달레이도 (교울롱 사원)

※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간 (肝)** 이 **간지방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옹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다린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히듯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까지 꼬박 8-9일 걸린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은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이침” MBC TV “고향은 지금” 초심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자연산 가시오가피뿌리!**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당뇨와 혈압저하 면역촉진 스테미너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처방되어 오고있는 가시오가피가 시중에는 엑기스류 형태의 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고품질이라 부담스러워 그동안 망설여왔던 분들을 위하여 자연산 6년이상된 가시오가피 뿌리를 각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드 드립니다.

1개월만 응용하시면 몸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가격 : 특별할인 3개월 5kg 15만원판매 (배송료 포함)

**이용방법**

가정용 약탕기에 물 2000cc를 붓고 깨끗히 씻은 가시오가피 뿌리 100g을 넣어 3-4시간 달인 후 식전 30분전 한잔씩 하루 서너번 응용한다.

**이런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 ◇ 격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 ◇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우려되는 중 · 노년층
- ◇ 강한체력, 지구력,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선수
- ◇ 사고나 병후에 원기회복이 절실한 남녀노소
- ◇ 또래보다 허약하고, 키도 잘 자라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
- ◇ 눈이 침침하거나 탁하고, 손발이 저리고 습한 중 · 노년층
- ◇ 기력을 잃어 부부생활에 자신을 잃은 남성
- ◇ 원기회복과 체력증진이 필요한 남녀노소

입금확인 후 1-2일내 배송. 계좌번호 (예금주 : 김현영)  
하나은행 37801-0061427, 우리은행 : 048-045204-12-001  
공급업체 : 케이앤링크 / 홈페이지 : http://www.knlink.com  
주문상담전화 : 080-933-5578 / 02)933-5577